

“대형마트, 전통시장 적이나 온라인·편의점에 죽을 맛”

대한상의,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지난해 대형마트 3사가 ‘성장 정체’에 부딪히며 처음으로 기존 점포를 폐업하는 등 몸집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온라인쇼핑 확대 등의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규모점포 규제완화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에 영업을 막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상의는 현재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유통업체가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업체 3사 기준으로 지난해엔 처음으로 점포가 2개 줄어들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의 경우는 2014년 1%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 점포수도 2017년에 1574개까지 늘어나며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상의는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최근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의가 ‘소매업체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이 27.2%, 대형마트 24%로 소매판매

액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2012년엔 대형마트가 25.7%, 전통시장 11.5%로 크게 앞섰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증가로 2017년엔 대형마트가 15.7%, 전통시장이 10.5%까지 소매판매 비중이 낮아졌다. 대신 온라인쇼핑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영업제한 제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더라도 ‘대체제’로서 전통시장을 찾는 비중도 12.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은 27.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 이용객은 8.9%로 조사됐다.

상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이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생’을 통해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력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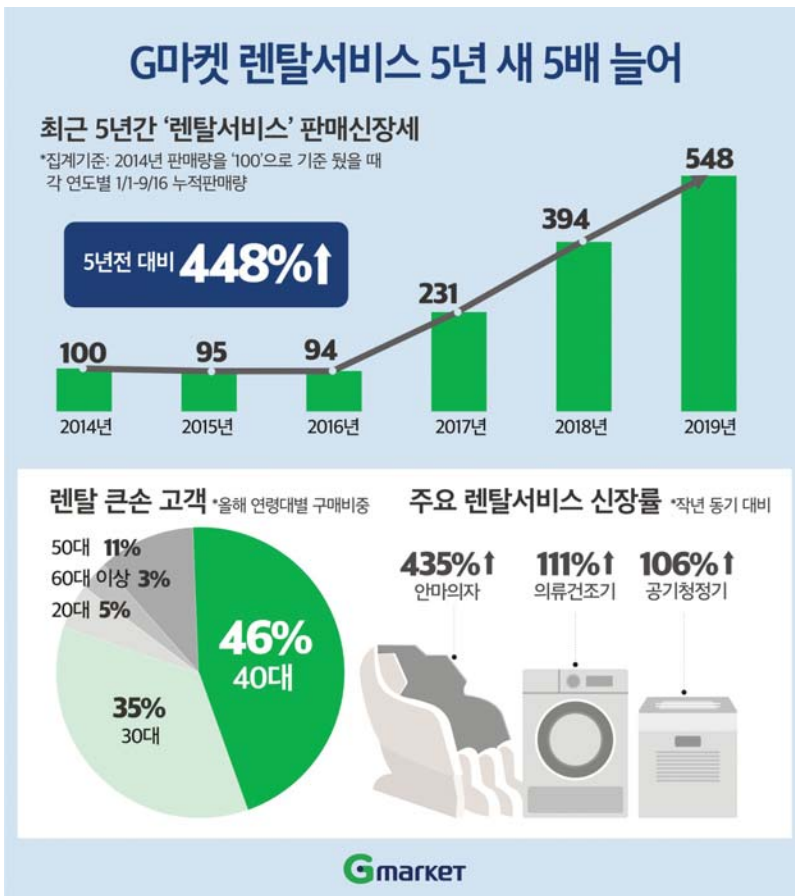
이처럼 전통시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대형마트의 생존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계 상의의 설명이다.



이마트와 스피드메이트 오프라인의 콜라보 23일 오전 이마트 상수점에서 모델들이 스피드메이트(Speedmate) 와이퍼 및 차량 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국 이마트 70개 매장에서 스피드메이트 와이퍼를 판매하며 스피드메이트 제품은 구매 후 이마트 매장에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무료장착이 가능하다.

“안마의자 기본, 펫드라이름까지”...렌탈 서비스 판매량 5년새 5배

G마켓, 최근 5개년 렌탈 서비스 판매량 조사 “3040세대의 합리적 소비...렌탈 품목 다양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을 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구독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정수기 등으로 대표되던 렌탈 서비스’가 이제 온열건강기기, 펫드라이름 등 다양한 품목으

로 확대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23일 온라인쇼핑몰 G마켓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9월16일) 렌탈 서비스 판매량이 5년 전인 2014년 동기 대비 5배 이상(448%) 급증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안마의자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435% 급증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건조기(111%)와 공기청정기(106%) 모두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다. 5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안마의자는 렌탈 판매량은 1089%, 공기청정기는 4124% 급증했다.

렌탈 서비스 신장 연평균은 40대가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대가 뒤를 이어 35%였다. G마켓은 가계 경제권을 가진 3040세대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양해진 품목 역시 렌탈 서비스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를 비롯해 커피머신, 에어프라이어, 인덕션 등 각종 주방가전용품과 LED마스크, 드라이기 등 미용기기, 펫드라이름 등 이색 반려동물용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척추연료요리기, 눈마시지기 등 건강 관련 용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한진 G마켓 사업개발팀 매니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어 렌탈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창업기업 전년비 2.5% ↑...기술창업 10개월 연속 증가

서울·경기·인천 창업기업 55.2% ‘수도권 풀림’ 심화

올해 7월 창업한 기업은 11만 5000여개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창업한 기업은 11만4834개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5%(2782개)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창업은 8.9%(1645개) 증가한 2만2297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만 9155개(25.4%) △부동산업 2만 4476개(21.3%) △숙박·음식점업

1만6514개(14.4%) 순이다. 전년 동월 대비 부동산업 창업은 5.5% 감소했지만, 도·소매업(8.7% ↑)과 숙박·음식점업(2.6% ↑) 창업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기술창업은 지난해 7월 1만8584개에서 올해 7월 2만2297개로 8.9% 늘어났다. 기술창업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7월 법인 창업기업은 1만265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6%(1070개) 증가했

다. 같은 기간 개인 창업기업은 10만4569개로 1.7%(1712개)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기업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5만2637개, 남성 창업기업은 2.5% 늘어난 6만2127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1040개 ↑) △경기(675개 ↑) △서울(534개 ↑) △대전(347개 ↑) 등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창업기업이 전체 창업기업의 55.2%(6만 3384개)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풀림 현상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